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810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장기공소(공주신관동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2년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 2024년 10월 13일(나해)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 10,17-3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성소분과위원, 예비신학생 부모님 모임
10월 16일(수) 오후 8시
비대면 ZOOM모임

성소

"쿼바디스" 청년 사제 성소 모임
10월 19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성소국

말씀의 향기

제57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며

남동우 요한보스코
육군 백골본당 주임

백골성당, 태풍성당, 맹호성당, 강철성당, 승리성당, 이기자성당, 흑룡성당, 천마대성당… 군종교구 내 대부분 본당 명칭은 부대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전방부대 성당에서 군종신부로서 세 번째 소임 중이기도 하지만,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청소년 시기를 군종교구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는 군부대 성당 이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군 성당에 들르시는 민간 본당 교우분들 중에는 '성당'이라는 두 글자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본당 이름이 아니냐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색깔이 다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대가 지향하는 강인함과 성전의 평화가 공존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찾아와서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이 있기에, 어쩌면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평화와 강인함이라는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군인 주일을 보내며 평화와 강인함이 공존하는 거점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군 장병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군종신부, 수도자,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용사(옛 '병사'의 변경된 호칭)들을 언급하며 '요즘 애들은 성당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한다.', '급여가 많아져서 성당 간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너무 진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걱정(?)어린 조언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관심과 노력을 더 쏟을 때에 성당을 찾는 용사들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에 큰 욕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군 성당에는 용사 친구들뿐만 아니라 간부와 군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남북간 대립 상황에서 신앙은 신자 간부들에게 무형 전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묵묵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 가족들(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은 위로와 희망의 끈이 됩니다. 가족들은 때때로 전방, 섬 등 격오지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 가족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더 쏟을 때에 냉담하던 간부가 회두하고, 외짝 교우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동료 간부에게 신앙을 권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대전교구 공동체에 두 가지 기도를 청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국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애쓰는 군종신부, 수도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요즘 최전방 공소들에서 미사를 할 때에는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시멘트벽을 뚫고 넘어 들려옵니다.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 기후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병들은 국방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바치는 미사와 기도가 긴장감을 뚫고 넘어 평화를 이루는 거점이 되도록 군종신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울이 (1091)
유판식 토마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10월 14일(월)~19일(토) 오전 6시 50분 천안쌍용동 보좌 신성수 신부 편

아직도, 여전히 또한 앞으로도
시노달리타스(28)

시노드적 삶의 바탕인 시노달리타스의 영성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그리스-가톨릭교회 상설 시노드와 메트로 폴리탄 총대주교와의 알현에서 "시노드를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노드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시노드'를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삶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치신다.

모두가 시노드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노달리타스 소명'을 받았다는"(바티칸시노드사무국,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영성을 향하여』) 뜻이기 때문이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생활과 교회의 자기인식에 있어 새로운 요소가 아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래로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시노달리타스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생활과 활동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은 성령께서 교회의 삶을 가꾸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시어 더 큰 친교와 참여 그리고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이끄는 방식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례 때에 은총으로 받았지만 종종 잊혀지고 방치되어 왔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과 헌신, 관대함과 나눔의 생생한 힘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삶과 사명을 위해 새롭게 '되어감'과 역동성을 살아가는 교회적 습관(habitus)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은 내적 차원의 정신에 머물지 않고 신념과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영적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성령의 생명력, 우리의 관계 방식이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며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을 살아가며 '시노드'가 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드는 교회는 정의와 존엄성, 화해와 평화 안에서 모든 이를 위한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 된다(마태 5,15 참조).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노달리타스 영성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주제들과 그의 실천방식, 마지막으로 시노드적 교회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안동훈 안드레아 신부** 가수원 주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34. 지구의 아픔, 기후난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원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찬미받으소서」 48항). '소외된 이'들은 수십 억 명에 이르지만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취급합니다. 그들이 울부짖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구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면 대뜸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49항). 다가오는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과 같은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끼니 지구의 아픔, 기후난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

15. 미사 중 “일어섬”에 대해서

미사 중 “일어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교우분들은 전례 안에서 동일한 동작을 취합니다. 입당성가가 시작되면 일어서고, 본기도가 끝나고 1독서가 시작되면 앉습니다. 그리고 복음환호송이 시작되면 일어서고, 강론이 시작되면 앉습니다. 이렇듯 전례 안에서 약속된 동작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편에서부터 미사 안에서 신자들이 취하는 자세, “일어섬”, “앉음”, “무릎 꿇음(장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설자의 “모두 일어서십시오.”라는 멘트와 함께 우리들은 미사 중 일어섭니다. 물론 해설자의 권유에 따라 행해지는 태도라기보다는 우리는 미사 중 언제 일어서야 하고, 언제 앉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섬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어섬”의 행위 안에는 존경과 공경의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일어선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희망과 믿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는 일어서는 의미를 하느님께 기도하는 믿는 이들의 기본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마르코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미사 중 “일어섬”의 의미와 가장 밀접한 연결이 되는 주님의 초대가 적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픈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일어서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일어서서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곧 일어섬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부르심이자, 주님의 음성에 따라 걷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 중 일어서는 동작은 주님의 음성에 순명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 일어서는 행위는 몸으로 드러내기 위한 동작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떻든, 우선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음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 나아갈 때, 우리는 몸으로써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도 성장될 수 있습니다. 꼭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몸으로도 주님께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미사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자선진료기금 마련 사진전 개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병원 1층 상설 전시관에서 자선진료기금 마련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대전성모병원 개원 5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진전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입원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회복 in 느티나무’를 주제로 한 사진전은 원목실 김제동 실장신부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해외선교활동을 하며 촬영한 자연배경 사진 14점이 전시된다.

대전성모병원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병원의 자선진료 예산과 교직원 후원회인 성모자선회를 중심으로 자선진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개원 55주년을 맞아 사진전을 통한 기금 마련,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복지시설 발굴 및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 범위와 형태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0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 : 10.22(화) 19:30
- 곳 : 가수원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제232차 주말ME
- 때·곳 : 10.25(금)~27(주일), 해미 웨이크업센터
- 대상 : 결혼 2년 이상 부부(종교 불문), 성직자, 수도자
- 신청·문의 : 010-9746-0179, 010-3637-9746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국립대전현충원 위령의 날 미사
- 때 : 11.2(토) 10:00 연도 후 미사
- 곳 : 보훈공원
- 준비물 : 야외 돗자리

대전교구 발달 장애인 가족미사
- 때 : 10.26(토) 11:00
- 곳 : 장애인 사목부(대전 대덕구 오정동 334-16)
- 대상 : 교구 내 발달 장애인 가족
- 내용 : 발달 장애인 가족미사, 소모임, 식사
- 문의 : 장애인 사목부 (042)637-1838

본 당

제30회 프란치스코평화음악회
- 때·곳 : 10.19(토) 19:00, 목동성당(전석초대)
- 연주 : '디 에클렛 콰르텟' 현악사중주 초청음악회
- 주최 : 평화음악후원회

대천해수욕장성당 & 연수원 채용 공고
- 대상 : 관리사 1명 (65세 이하 지원 가능)
- 업무 :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정비
-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 접수 :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제출
- 문의 : (041)934-7758, 팩스 (041)394-7736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순교자학교(순교영성피정)
- 내용 : 11.2(토)~3(주일) 순교자의 길을 따라 12.21(토)~22(주일) 신앙선조들의 기도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대전교구 6만원
- 문의 : 010-8848-5690

2025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2.19(수)~3.1(토) 이탈리아(11일) 520만원 (대한항공)
- 2.11(화)~22(토)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25만원 (대한항공)
- 3.24(월)~28(금) 나가사키, 고또(5일) 195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신청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02)-852-8525

대전성모의집(무료급식소) 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 모집 : 급식도우미 1명
- 업무 : 조리 및 배식 등 조리업무보조
- 접수 : 채용시까지
- 문의 : (042)635-5111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평화방송 아도르떼 (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대상 : 만55세 이상 남녀 가톨릭신자
- 연습 : 매주 (월) 1부 10:30, 2부 19:30
- 곳 : 선화동성당
- 문의 : 010-7933-824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 가톨릭성서모임 성서그룹공부 연수
- 제104차 탈출기 : 11.9(금)~11(주일) 09:30~15:30
- 제105차 마르코 : 11.16(토)~17(주일) 09:30~15:30
- 제106차 창세기 : 11.23(토)~24(주일) 09:30~15:30
- 대상 : 각 그룹공부 이수한 사람
- 곳 : 가톨릭문화회관(온라인 동시 병행)
- 연수비 : 5만원
- 신청문의 : 010-4228-0470

제18회 대전 가톨릭 만돌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때·곳 : 10.29(화) 19:00, 관저문예회관
- 문의 : 김기숙 010-2719-7167
- 단원모집중 레슨문의 환영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10.17(목) 15:00,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때 : 10.17(목) 14:00
- 곳 : 원신흥동성당
- 집전 : 김재덕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 용	비고
치유대피정	10.14(월) 09:30	기도회, 말씀, 미사, 안수 등 강사 : 김준년 신부(대구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차량운행 지족역2번출구 09:10 대기출발
은혜의 밤	10.24(목) 19:00	말씀, 미사, 안수 등 강사 : 박상언 신부(성연본당 주임)	차량운행 지족역2번출구 18:50 대기출발
천안아산지구 기도회	10.25(금)	말씀피정 강사 : 이재훈 신부(대전교구)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미사 및 기도회 휴회 안내 10.15(화)~18(금) 새얼센터 휴관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녜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정형외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부산음악교육원]성가대지휘 전문가과정 개설
- 대상 :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있는 사람
- 기간 : 연간 24주간 3년과정(토 9시~13시)
- 입학시험 : 2025.2.15(토)
- 등록금 : 1년 290만원
- 문의 : 음악원 (051)519-0475

4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 국가 : 캐나다, 필리핀
- 대상 :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 성인 및 대학 어학연수
- 문의 : 국제교류팀 (053)593-1273
- 화상영어 수업 접수 가능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 때 : (2차) 11.2(토) 14:00
- 대상 : 현재 초6, 중1
- 문의 : (054)338-0530
-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gyo6.net/sanjayeon) 참고

긍정심리학을 통한 상담기술
- 긍정심리학 기반의 상담 기술 교육
- 때 : 11.6(수)~27(수) 20:30~22:30
- 진행 : 온라인(줌) 진행
- 신청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시각장애전문교육기관 충주성모학교
- 유·초·중·고·전공과 운영
- 시각장애 및 저시력인(약시)
- 무상교육, 기숙시설, 통학, 보조기기 등
- 35종 장학금, 안마사자격, 일자리 등
- 교무실 : (043)852-1374

국악성가 한밭합창단 단원모집
- 지도 : 강수근 신부
- 지휘 : 황승현(대건안드레아)
- 연습 : 매주(화) 오후 8시, 둔산동 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총괄실장 010-2279-0255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5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 : 10.14(월)~12.14(토)
- 접수 :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 참조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비용 : 120만원
- 문의 : 010-3645-9028

수도회 및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10.19(토) 14:00
- 곳 :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중입니다.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성소부 010-5195-3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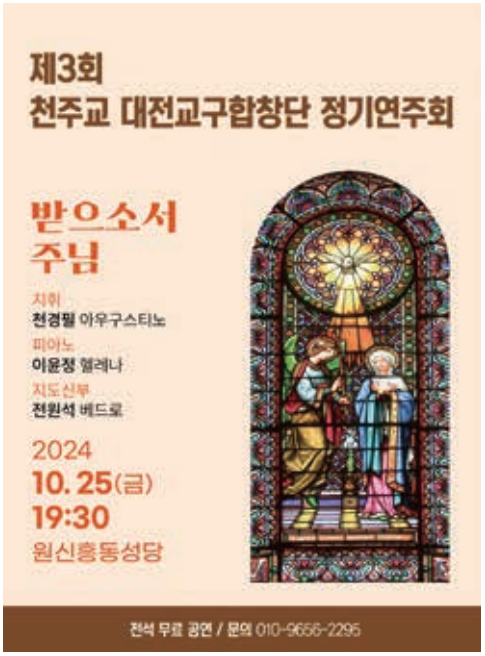
거룩한 말씀의 회 바자회
- 수도회 창설 60주년의 해 기념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 때 : 10.19(토) 10:00~15:00
- 곳 : 대전 목동 본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 때 : 주 1회 매주 목요일 20:00~21:30
- 대상 : 20~45세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 :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 (상시 상담가능)
- 문의 : 010-9199-499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 성경완독 : 11.1(금)~ 9(토), 12.6(금)~14(토)
- 문의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62.8°C 총 모금 628,191,041원

[9.22~30 모금액] 28,266,621원
본당 9,435,220원 / 개인·기관·행사 18,831,401원

현대정형외과
- 척추, 관절, 통증, 재활 -
원장 : 이정구 (시몬)
T. (042)621-7585 동구 가양초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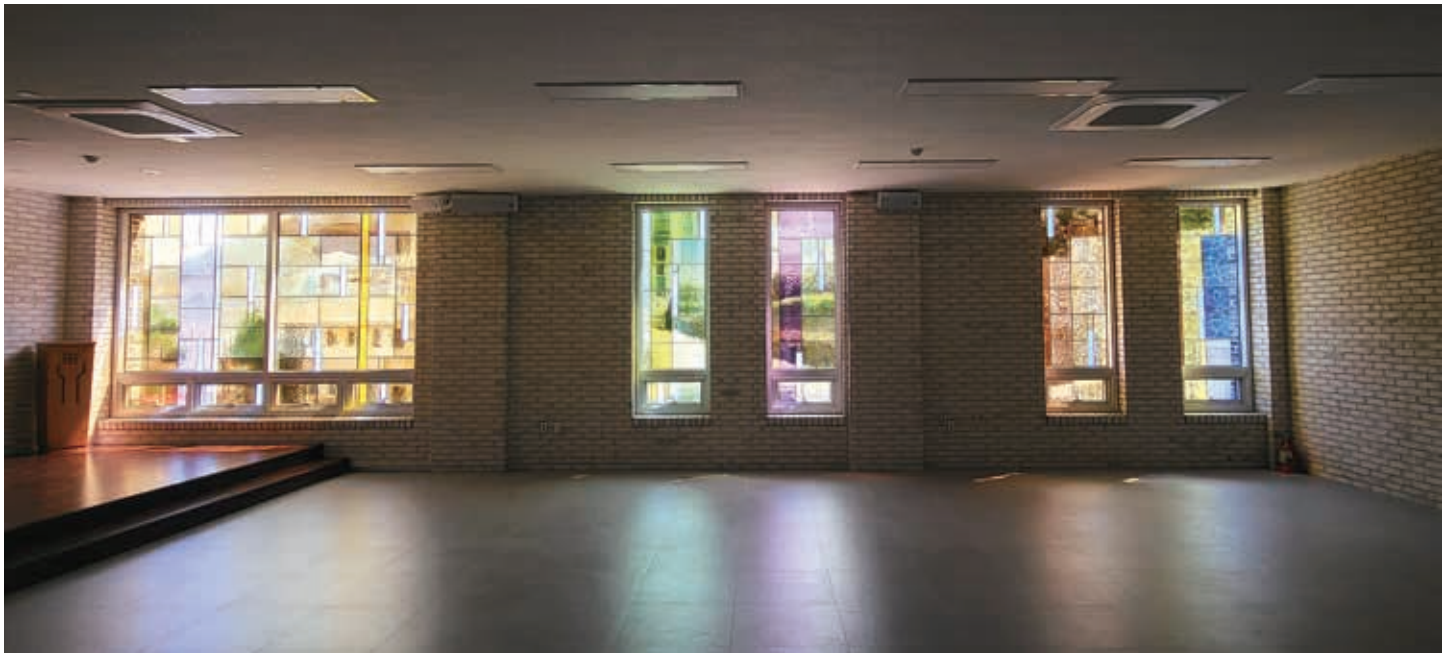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T.(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10일 715만원
라파엘특선(동반자 100만원할인특가)
*시칠리아,몰타10일, *포르투갈일주9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외 9인 협진
T. (042)489-8888 유성온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스테인드글라스 이야기 (25)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다목적센터 유리화 「빛이 되다 – 오순절 평화의 마을」

- 제작년도 2024년
- 재료 엔틱글라스(Antique Glass) 열성형유리(Fused Glass)
- 크기 340x220cm(1EA), 76X220cm(6EA) 중 부분
- 제작의도

이 작품은 빛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빛과 색의 조화로 다목적 센터의 공간을 따뜻하고 영적인 장소로 변모시키며
자연으로부터 영감 받은 색상의 조합으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성스러운 빛은 하느님의 따스함을 상징하고,
색유리 사이사이 하얀 빛의 줄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이자 그분의 거룩한 열매임을 상징합니다.
자연광이 유리를 통과할 때 생기와 온기를 부여하며, 이 공간을 경험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며
마음속 희망의 빛을 품고,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장례지도사 교육원 신입생 모집

문의 : (044)861–7230 / 홈페이지 ▶

모집 과정	수업 일시	과목
교리신학원	매주 화, 목 14:00~17:10	• 신 · 구약 성경, 철학, 교회사, 기초신학, 영성생활 • 예수그리스도, 교리교육의 실제, 전례와 성사 • 교부학, 교회와 평신도, 가톨릭과 타종교
교리신학원 심화과정	매주 화 14:00~17:10	• 바오로 서간, 교부신학, 요한복음, 세계교회사
전례음악원 (가톨릭전례음악원, 합창지휘, 성악, 오르간)	• 공통 필수 과목 : 매주 화(오전) • 합창지휘(매주 월), 성악(매주 월) • 오르간 레슨은 별도 요일 진행	• 공통 필수 과목(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학기 : 전례와 전례음악, 2학기 : 그레고리오 성가 • 선택 과정별 수업은 왼쪽 요일 참고
전례꽃꽂이	매주 목 14:00~17:10	• 성경과 가톨릭 전례, 전례꽃꽂이를 위한 거룩한 독서 • 초 ·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사, 조형과 디자인 • 전례꽃꽂이 실기
전례꽃꽂이 심화과정	매주 화 12:00~15:30	• 전례꽃꽂이를 위한 거룩한 독서, 미술 이론 특강 • 전례 봉사와 직무, 이콘을 활용한 전례 주년 묵상 • 전례꽃꽂이 실기
성 요셉 장례지도사 교육원	매월 2박 3일 1회(개별 안내)	• 일반 및 가톨릭 상장례, 위생, 보건, 장사시설 등

태안본당, 전민동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9월 29일(주일) 태안성당(주임 곽승룡 신부)에서 본당 교우 41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9월 29일(주일) 전민동성당(주임 변윤철 신부)에서 본당 교우 65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천안모이세 개소 20주년과 함께한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천안모이세(전담 방영훈 신부)는 9월 22일(주일) 개소 20주년과 함께한 "세계 이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4개 국어(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봉헌된 미사에는 천안동부지구 신부들과 민족별 공동체 신부들이 참석하였고, 민족별 공연, 전통음식 나눔, 체험 부스 운영,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베트남 홍수 피해복구비와 필리핀 본국 어린이들 급식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온양신정동본당 순교자의 밤 미사

온양신정동본당(주임 이의철 신부)은 순교자 성월을 맞아 9월 27일(금) 남방제성지에서 약 1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성 조화서(베드로)와 성 조윤호(요셉) 부자, 그리고 하느님의 종 강요한, 권중심, 고선양, 김 필립보와 박 마리아 부부 등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순교자의 밤 미사를 기쁘게 봉헌하였다.

덕명동본당 본당 설립 10주년 감사 성지 순례

덕명동본당(주임 김영직 신부)은 9월 21일(토) 본당 설립 10주년을 감사하며 배티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미사봉헌, 십자가의 길 기도, 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박해 시대 신앙 선조들의 신앙심을 되짚어보고,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성서모임 심포지엄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9월 28일(토) 서울 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가톨릭성서모임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공주교동본당 어르신 우리들의 축제

공주교동본당(주임 여준구 신부) 노인분과는 9월 26일(목) 오전 미사 후, 어르신 "우리들의 축제"를 열었다.

개인 장기자랑과 함께 모여 연습한 춤과 노래를 발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궁동본당 야외미사 및 한마음 큰잔치

궁동본당(주임 김찬용 신부)은 9월 22일(주일)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야외미사 및 한마음 큰잔치"를 어은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본당 신자들과 드리는 야외미사에서 주님이 지난 30년간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성당을 보살펴 주셨음을 느끼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미사 후 지난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오늘 그날은" 특별영상과 색소폰팀의 흥겨운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명랑 체육대회와 푸짐한 경품행사로 하느님 안에서 화합하는 진정한 친교의 시간이었다.